

“네이버 AI 뉴스 무단 학습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네이버가 자사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네이버가 2021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네이버 생성형AI ‘하이퍼클로바’ 사전훈련 데이터에서 뉴스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13.1%다. ‘모두의 말뭉치(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학습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를 포함하면 뉴스의 비중은 더 늘어난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들어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뉴스만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언론사들은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AI 서비스 모델 개발에 무단으로 활용한 것은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더욱이 네이버가 학습 과정에서 언론사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사전 동의나 고지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네이버의 뉴스 무단 학습이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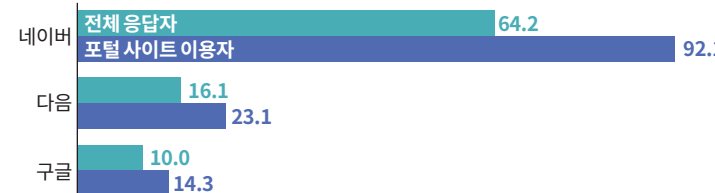
네이버의 뉴스 이용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하려면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법조계는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 인터넷 전송 시장에서 압도적인 이용율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볼 수 있고 언

언론사 사전 동의·고지 없고 대가도 지급 안해 법조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기

인터넷 포털 사이트별 뉴스 이용률

(단위: %) 지난 1주일 동안 인터넷/포털을 통해 뉴스 이용한 비율(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언론수용자 조사’)



론사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이며, 언론사에 제시하는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부당하게 언론사에 불리한 경우 가격 남용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네이버는 단순히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

용하는 것을 넘어, 구독 서비스, 댓글 서비스 등을 통해 자사 뉴스 포털로 종속시키는 조건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독자의 정보를 독점, 수익배분과 관련한 정보 비공개, 뉴스 배치 조건 일방적 결정, 검색 서비스에서 자사 우대의 검색결과 배치, 검색 결과의 무상 이용 강제, 광고 배치 단독 결정 등이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온라인 뉴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뉴스 플랫폼 사업자와 미디어 대상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야후 재팬에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언론사의 약 60%가 야후 재팬으로부터 가장 많은 기사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또 뉴스 포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사 사용료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언론사에 불이익을 줄 경우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일본 공정위의 사례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한국 공정위도 일본 공정위 결론과 크게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자유 역행하는 언론 규제 법률 개정안 잇달아 발의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큰 법률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난 5월 31일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김영호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지난 6월 18일과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①정정보도 시 원 보도 크기·분량으로 게재 ②인터넷신문·포털은 정정보도가 있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과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 표시 ③인터넷신문이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정정보도 청구 중’ 표시 등을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문체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언론 보도 방식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

신문 편집 관련 사항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신문협회 “언론 자율 침해·과잉금지 원칙 위배…즉각 폐기해야”

구분	주요 개정 내용	문제점
언론 중재법 개정안	정청래 의원 발의 (5.31) ·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기한 완화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 언론 보도 방식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편집권 침해 · 특정 단체·기관의 악의적 이용 가능성 · 공인·공적 보도에 위축 효과
	김영호 의원 발의 (6.18) · 정정보도 시 원 보도 크기·분량으로 게재 · 인터넷신문·포털은 기사의 제목과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 표시 · 인터넷신문은 ‘정정보도 청구 중’ 표시 강제	· 언론 보도 방식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과잉금지 원칙 위배 · 특정 단체·기관의 악의적 이용 가능성 및 언론의 견제와 감시 기능 저해 우려 · 정정보도 표시 강제는 보도의 공신력 저하 · 정정보도 청구 중 표시 강제는 기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을 우려
	민형배 의원 발의 (6.26) · 정정보도 청구를 서면 외에 전화, 팩스 등으로도 가능하게 함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기일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 전화, 팩스 등으로 정정보도 청구 시 청구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 · 정정보도 청구 방식 다양화는 정정보도 요건이 되지 않는 청구를 무차별적으로 신청할 가능성 · 7일 내 조정을 강제할 경우 충분한 검토를 통한 원만한 합의 어려움
신문법 개정안	조계원 의원 발의 (6.28) · 신문사업자 등록 시 편집·제작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 등록제가 사실상의 허가제로 오용될 위험성 내포 ·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 · 신문 편집권을 정부가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신문 내적 자유 및 편집의 자유 침해 · 해외 선진국 유사 법률 사례 없음

다. 또 “정정보도 크기와 분량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신문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며, 특정 단체나 기관이 이를 악용할 경우 언론사의 보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①정정보도 청구를 서면 이외 전화, 팩스, 전자 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

도록 하고 ②조정 기일도 신청 접수 일로부터 기존 14일에서 7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또 ③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 수용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신문협회는 “전화, 팩스 등으로 정정보도 청구를 접수할 경우 청구내용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어, 개정안의

제안이유인 신속성보다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감안하면 7일 이내 조정을 강제할 경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정정보도 수용 여부 미통지와 같은 절차상의 오류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역시 과잉규제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신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신문법의 등록제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오용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문협회는 “신문 편집권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신문사에 강제하는 것은 정부가 신문 제작에 간섭할 빌미를 줄 뿐 아니라 편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정안은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권이 자의적·임의적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알림>

신문협회보 8월 1일자는 여름 휴가철인 관계로 휴간합니다.

이용자가 함께 만든 ‘동아일보 CMS’

기고

이샘물

동아일보 기자



동아일보는 기사 제작을 위한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국내 신문사 최초로 자체 기획·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CMS가 사내에 도입된 2022년 이후, 동아일보의 사례는 언론계에서 적잖이 화제가 됐다. 신문사가 외주사에 의존하지 않고 CMS를 자체 구축한 것도 기존에 없던 일이지만, 시스템 오픈 후 특별한 잡음 없이 이용자 사이에 안착한 것도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기존에 써오던 집배신과 작별하며 새롭게 활용하는 CMS의 이름을 ‘디프티’라고 붙였다. 디지털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간다는 ‘디지털 프런티어’의 준말이다. 새로운 제작 시스템의 자체 기획·개발이라는 ‘프런티어’를 어떻게 열 수 있었을까. 그 과정과 노하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용자가 중심이 된 설계

TF를 론칭한 2020년 7월 이후, 동아닷컴 개발팀과 중점적으로 논의한 항목 중 하나는 CMS의 ‘도입 방법’이었다. 외부에서 개발한 기성

품을 도입할 경우 신속하게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자체 개발을 하면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용이하지만, 구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외주사에 의뢰해 구축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체 개발만큼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하기 쉽지 않은데다 사내 업무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하나하나 이해시켜야 한다는 지난한 과정이 있을 것이었다.

CMS는 사내 구성원이 쓰는 시스템만큼, 이용자가 느끼는 효용과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내부 인력이 이용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며 개발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체 구축을 하려면 스스로 기획과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때 개발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려면 ‘기획’이 선결돼야 한다. 기획은 무엇이 불편하고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를 담은 ‘실제 화면’을 도출하는 것이다.

TF에서는 기자직이 기획을 담당했다. 현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잘 알기에 효과적으로 화면을 설계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화면 설계는 UX·UI 디자인의 영역이지만, 디자인 툴의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 관건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청사진을 담는 것이었다.

기획에서는 기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기기의 제약 없이 기사를 제작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같은 작업이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화면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 덕에 동아일보 CMS 화면을 본 사람들은 “화면이 직관적이고 깔끔하다”고 평을 한다. 실제로 처음 접하는 사용자도 간단한 설명을 들으면 금세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용자가 중심이 돼 기획한 시스템인 까닭이다.

모두가 다 같이 만드는 CMS

기획안이 도출된 뒤, 사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여러 시간대를 오픈해두고 누구나 등록해 기획안을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듣고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콘셉트는 ‘모두가 다 같이 만드는 CMS’였다. TF 구성원이 일방적으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용

자가 밑그림 단계부터 함께 보고 의견을 내면서 만들어가는 공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용자의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자발적인 참여에만 머물지 않았다. 부서나 직군별로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각 대표자가 CMS 구축 과정에 필수적으로 동참하도록 했다. 소위원회 참여자는 소속 부서나 분야를 대표해 CMS를 사용해보고 면밀하게 점검하는 역할을 했다. 소속 부서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엔 통일된 의견을 도출해 조율하는 역할도 맡았다.

CMS는 결과가 아닌 ‘과정’

CMS 구축 과정에서 “언제 오픈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다. 구축 시점을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CMS는 어느 날 한 번에 완성되는 ‘고정된 결과물’이 아닌, 이용자 요구와 시대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CMS의 사내 오픈은 단계적으로 했다. TF 구성원이 먼저 사용한 뒤 소위원회 구성원이 사용하고 점검하도록 했고, 이후 ‘시범 사용자군’을 지정해 베타버전을 사용해보도록 했다. 이어 CMS로 온라인 기사를 제작해본 뒤 신문 제작

으로 확장했다. 신문 제작에 있어서는 특정 면이나 섹션을 시범 제작한 뒤 전체 지면 제작에 돌입했다. 이런 모든 단계마다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며 추가적인 보완을 거쳤다.

CMS 업그레이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 같은 논의와 실행이 꾸준히 가능한 것은 CMS를 자체 역량으로 구축했기 때문이다. 동아닷컴이 숙련된 개발자들을 갖추고 있고, 경영전략실(기획)과 동아닷컴(개발), 편집국(이용자 교육)이 유기적으로 협업한 덕에 가능한 일이다. 이를 통해 쌓인 역량은 ‘무엇이든 직접 개발하고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동아일보는 올해 CMS의 사용 주체를 추가로 확장했다. 편집국의 일간 뉴스 제작 아니라 출판국 내 잡지 매체, 미디어그룹 내 다른 계열 매체에까지 CMS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는 더 나아가 다른 언론사에게까지 확장할 구상도 갖고 있다. 이용자가 직접 기획하고 다양한 매체와 직군이 활용하며 검증된 CMS를 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축적한 자산이 언론계에서 귀중하게 활용되고 추가적인 시너지를 낼 날을 기대해 본다.

마케팅협, 대전 지역 신문공동배달 추진

연간 약 1억2천만 원 비용 절감 효과 기대

협회 산하 마케팅협의회(회장 오병철 문화일보 독자마케팅국장)는 지난 6월 27일 신문협회 회의실에서 4개 회원사 발송 담당자로 구성·운영 중인 실무자TF 회의(사진)를 열고 대전시내 지역의 신문 배송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실무자TF는 대전시는 신문을 겸영하는 통합 지국의 비율(63~94%)이 높아 공동으로 신문

을 배송할 경우 운송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전 지역 공동수송 노선에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4개사가 참여하며, 전자신문, 한국일보 참여도 검토 중이다. 신문사 운송료 부담률은 각사의 부수 비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현재 4개사의 대전 지역 연간 수

송비용은 2억6500여 만원으로, 공동수송노선을 운영할 경우 수송비용은 연간 약 1억39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비용 절감액은 약 1억2000만 원. 실무자TF는 경기·호남지역 등도 공동수송노선을 개발해 회원사의 운송비용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한편, 마케팅협은 지난 7월 3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유통원(원



장 장영호)과 간담회를 열고 신문 유통 지원사업 예산 확대 및 지원사업방식 개선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신문수송노선 관리운영 및 개발을 위한 실무협의 진

행(8월 중) △신문수송비 예산 확대(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편성 검토) △소외계층구독료 사업방식 전환(구독자 직접 지원→신문사 보조금 지원 방식)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 콘텐츠 정당한 가치 보상·저작권 보호 필요

기조협·디지털협 회장단 간담회

협회 산하 기조협의회(회장 권동형 한국일보 전무이사)와 디지털협의회(회장 신한수 서울경제 전략기획

실 부국장) 회장단은 지난 7월 5일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뉴스 저작권 보호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언론진흥재단의 AI 학습용 데이터 판매사업과 관련해 “뉴스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 보상과 저작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뉴스

데이터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학습용 뉴스데이터 판매)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는 구매자인 AI 기업들의 구매 수요와

예산 등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 뉴스 저작권 실태 사업의 논의 구조가 저작권자인 언론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英 가디언, 독자 관심도 측정 지표 개발...‘정독한’ 기사 목록 공개

페이지뷰 넘어 독자 참여 분석...저널리즘 가치 평가 새 모델 제시

지난 6월 21일 미국 미디어 전문 매체 에디터앤퍼블리셔(E&P)에 따르면,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최근 독자가 뉴스 기사를 얼마나 깊이 읽고 오래 머무는지 등을 평가하는 독자 관심도 측정 지표를 개발했다. 이 측정 지표는 독자가 콘텐츠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반영한다.

가디언은 콘텐츠 유료화 모델 대신 후원 모델을 택한 대표적인 언론사로, 수익의 절반 이상을 독자들의 기부에서 얻고 있다. 가디언은 “후원 모델에서 팔로워 수, 수익과 신뢰를 얻는 비결은 독자들이 기사를 소비하는 시간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됐다”며 독자 관심도 측정 지표를 개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가디언은 페이지뷰(PV)와 기사 길이를 고려한 독자 체류 시간을 기반으로 각 기사마다 1부터 5까지 ‘시계 등급(기사의 성과를 하나에서 다섯 개의 시계 이미지(일종의 별점)로 나타내는 시각적 평가 도구)’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단순 조회 수를 넘어 독자가 실제로 얼마나 깊이 기사를 읽고 관심을 갖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가디언은 이를 활용해 지난 2월부터 웹사이트에 독자들이 ‘정독한’(Deeply read) 기사 목록을 추가했다. 이는 기존의 ‘가장 많이

본’(Most viewed) 기사 목록과 함께 제시된다.

가디언 뉴스&미디어 편집책임자인 크리스 모란(Chris Moran)은 “단순 클릭을 유도하는 ‘클릭베이트’의 위험을 줄이고 독자의 진정한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6년 전부터 이 지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독자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페이지뷰의 ‘좋아요’와 같이 훌륭한 저널리즘을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더 건강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Most popular	Most viewed What readers are clicking on	Deeply read What readers are spending time with (Learn more)	
	1 Ukraine war briefing: Chinese troops hold military exercises with Belarus on Polish border	1 Could you forgive your childhood bully? Katy Wix confronts a painful memory	
	2 Motorcyclist dies from heat exposure in Death Valley as temperature reaches 128F	2 Tour de France: Turgis pips Pidcock on gravel as Evenepoel accuses Vingegaard	
	3 France election: surprise win for leftwing alliance keeps Le Pen's far right from power	3 'Where are the racists now?': football reacts to Saka's and England's perfect penalties	
	4 Outrage after Biden administration reinstates 'barbaric' Trump-era hunting rules	4 Karen Read saga set for sequel after mistrial in gripping murder case	
	5 Stormy Daniels gets more than \$900,000 from GoFundMe after alleged threats	5 Lewis Hamilton thrills home crowd by winning British F1 GP for ninth time	
	6 Why is the pundit class so desperate to push Biden out of the race?	6 France's progressives keep out the far right, but what could happen next?	
	7 France no longer resembles a divided but tolerant family. It is catastrophically fractured	7 Mahuchikh and Kipyegon break high jump and 1500m world records in Paris	
	8 IDF used protocol that may have risked civilian lives in Hamas attack - report	8 Keir Starmer ruled out rejoining the EU. Now he must think again	
	9 Assured Kamala Harris cuts a transformed figure in New Orleans - and avoids talk of Biden	9 Pistols Napoleon planned to use to kill himself sold in France for £1.7m	
	10 Biden's doctor reportedly met with top neurologist at White House	10 Judy Murray insists comment about Raducanu's withdrawal was sarcastic	

가디언 홈페이지에 표시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와 ‘정독한’ 기사 목록

언론사 재정 안정성은 ‘수익다각화’가 핵심

FT 스트래티지 보고서, 자그란·십스테드·타임아웃 성공 사례 제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자회사 FT 스트래티지는 지난 1일 ‘회복탄력성 구축: 뉴스미디어 산업을 위한 다각화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언론사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익다각화 전략을 다루고 있다.

FT 연구에 따르면, 4개 이상의 주요 수익원(전체 수익의 15% 이상)을 가진 뉴스 조직이 더 높은 수익률과 지속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신규 고객층 확보와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다각화 전략을

제안하고, 언론사의 수익다각화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인도 신문 자그란은 온라인 뉴스플랫폼 ‘자그란 뉴 미디어’(Jagran New Media)를 설립하고, 힌디어뿐만 아니라 영어, 펀자브어, 마라티어, 타밀어 등 다양한 언어로 콘텐츠를 제공했다. 또 자동차, 기술, 라이프스타일,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개발해 독자층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했다. 이러한 다각화 전략을 통해 자그란 뉴 미디어는 인쇄 매체 독자층을 넘어 1억 명 이상의 글로벌 사용자를 확보하며 인도 10대 뉴스 및 정보 매체로 성장했다.

다양한 수익원을 개발해 광고 모델 의존도를 낮추고 2028년까지 1억 2,200만 달러(약 1,687억 8,700만 원)의 총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르웨이의 대표 미디어그룹 십스테드(Schibsted)는 1995년부터 오슬로넷 AS라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를 인수하며 디지털 시장 진출을 시작했다. 이후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주요 온라인 광고 사이트를 인수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며 사업 다각화를 추진했다. 십스테드는 뉴스 미디어 사업 외에도 마켓플

레이스, 금융 서비스, 벤처 투자 등 사업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하며 2023년 기준 14억 6천만 달러(약 2조 203억 4,800만 원)의 매출과 2억 3천만 달러(약 3,182억 7,400만 원)의 EBITDA(세전·이자지급전 이익)를 기록했다. 특히 디지털 광고 사업은 전체 매출의 31%를 차지하며 39%의 높은 EBITDA 마진을 기록했다.

인쇄 매체의 쇠퇴로 어려움을 겪던 영국의 타임 아웃(Time Out)은 2014년 포르투갈 리스본에 첫 번째 ‘타임 아웃 마켓’을 오픈하며 오프라인 음식 시장 사업에 진출했다. 이후 북미 지역 등

로 시장을 확대하며 2019년에는 음식사업 매출이 기존 인쇄 매체 매출을 넘어섰다. 타임 아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음식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2022년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또 디지털 광고 및 유료 이벤트 등 새로운 디지털 수익원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고객 니즈 파악 △자사 강점 이해 △단계적 확장 △소규모 실험 및 투자 △선결 제 모델 활용 등을 다각화 실행 전략으로 꼽았다.

美 지역언론 지원 움직임 확산

AP 지역저널리즘 기금 모금...캘리포니아 저널리즘보존법 상원 통과

AP통신이 지역 저널리즘 지원을 위해 최소 1억 달러(약 1381억 원) 규모의 기금 모금을 추진한다. 지난 6월 25일(현지시간) AP의 데이비 비라싱엄(Daisy Veerasingham) CEO는 악시오스(Axios)와의 인터뷰에서 이 계획을 밝히며, 독립적인 조직을 출범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P 저널리즘 기금’이라는 이름의 이 조직은 미국 연방세법상 ‘공공 자선단체’로 설립돼 지역 뉴스 활동을 지원한다. 비라싱엄 CEO는 “단체의 새로운 기금은 AP의 지역 저널리즘 활동은 물론, 지역 뉴스룸을 지원하는 관련 교육 및 서비스 구축 등 업

무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P는 지난해 오픈AI와 2년간 라이선스 및 기술 공유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에는 콘텐츠 공유 및 배포를 위해 5개 지역 언론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캘리포니아 저널리즘 보존법’(CJPA, AB 886)이 상원 법사 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23년 3월 버피 위크스(Buffy Wicks)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메타, 구글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지역 뉴스 콘텐츠 옆에 하는 광고에 ‘저널리즘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언론사는 이 수수료로 얻은 수익의 70%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했다. 지난해 6월 주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상원 예산위원회·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회원사 동정

경기일보, 제19회 과천 토리배 전국 3X3 농구대회

경기일보(발행인 신항철)와 과천시시는 오는 8월 10일~11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제19회 과천 토리배 전국 3X3 농구대회'를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중등부·고등부·대학일반부 총 130팀이며 오는 31일까지 인터넷(cafe.daum.net/gwacheon)으로 선착순 접수받는다.

경인일보, GA 코리아배 제21회 경인일보 중·고생 골프대회

경인일보(발행인 홍정표)는 창간 79주년을 맞아 오는 7월 22일~23일 용인 기흥 소재 골드컨트리클럽에서 'GA 코리아배 제21회 경인일보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고등부 남·여와 중등부 남·여 등 총 4개 부문에 240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SBS Golf 채널로 중계방송된다.

동아일보, '2024 우먼스 풋살 in 인천'... 축구의 매력 속으로

동아일보(발행인 임채정)와 채널A가 공동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는 '2024 우먼스 풋살 in 인천' 대회가 오는 10월 19일 인천대공원 축구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50여 개 팀(팀별 10명 내외) 총 500명 규모로 6인제 15분 경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공식 인스타그램(@womans_futsal2024)을 통해 참가 팀을 선착순

접수받는다. 참가비는 팀당 15만원.

매일신문, 제4회 대한민국 캠핑대전 참가 접수

매일신문(발행인 이동관)은 화담재와 공동으로 8월 23일부터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캠핑대전 참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캠핑대전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캠핑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전신청은 8월 10일까지이며 행사 홈페이지(대한민국캠핑대전.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조선일보, 콤팩트 시티 대상 출품작 모집

조선일보(발행인 홍준호)는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개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24 콤팩트 시티 대상'을 제정하고, 출품작을 모집한다. '미래 도시'와 '균형 발전' 두 부문에서 콤팩트 시티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다양한 정책 및 기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응모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홈페이지(compactcityawards.com) 또는 이메일(chosuncca@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은 9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중도일보, 2024 직장인밴드 참가 모집

중도일보(발행인 김원식)는 대전문

화재단과 공동으로 8월 17일 대전 우리들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되는 '2024 대전 영시축제 직장인밴드 대전'에 참여할 참가팀을 모집한다. 참가 자격은 3인 이상 직장인으로 구성된 밴드팀으로, 음악저작권협회 및 한국연예인협회 등에 등록된 순수 아마추어 팀이면 된다.

온라인 예선 접수 기간은 7월 8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중도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화사업국(042-220-1041~2)으로 하면 된다.

중앙일보, 2024 월드 와이드 웹소설 공모전

중앙일보(발행인 박장희)는 크래프톤의 자회사 핑스플로우와 공동으로 '2024 월드 와이드 웹소설 공모

전(WWW)'을 개최한다. 로맨스, 로맨스 판타지, 추리/미스터리, 판타지/현대 판타지, 무협/대체 역사 등 5개의 장르에서 대상 1개, 최우수상 5개, 우수상 15개 작품을 선정하며, 총상금 규모는 1억원이다.

작품 제출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storyplay.com/conte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경제, 2024 한경 핀테크대상 수상 후보 공모

한국경제신문(발행인 김정호)과 한경닷컴은 '한경 핀테크대상' 수상 후보를 공모한다. 올해 9회째를 맞는 핀테크대상은 금융기술 혁신을 통해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금융

회사와 핀테크 기업을 표창하기 위해 제정됐다.

홈페이지(fintech.hankyung.com/award)를 통해 8월 30일까지 참가 신청 가능하다. 시상식은 9월 27일 한국경제신문빌딩 다산홀에서 개최된다.

신문협회보

발행인	임채정
편집인	정우현
제작	한국신문협회
발행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인쇄	삼아인쇄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등록번호	서울, 다50673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대구경북 1등을 넘어 디지털 언론 시대 선도

매일신문 창간 78주년

매일신문(발행인 이동관)은 창간 78주년을 맞아 지난 7일 창간 기념사를 발표했다.

이동관 발행인은 기념사에서 "매일신문은 1946년 창간 이래 권력에 의한 정간과 휴간은 있었을지언정 단 한 번도 쉽 없이

달려왔다"며 "대구경북 1등을 넘어 디지털 언론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 매체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매체의 다변화, 독자층 저변 확대, 다양한 수익원 창출 등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독자와 한마음으로 다시 함께... '중부 3.0시대' 열자

중부일보 창간 33주년 기념식

중부일보(발행인 최윤정)는 창간 33주년을 맞아 지난 7일 본사 7층 대회의실에서 창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최윤정 발행인은 기념사에서 "중부일보가 지역 이슈를 이끌 수 있는 뉴스에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며 "저부터 혼

들림 없이 옳고 담대한 중부일보 3.0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임직원과 독자의 염원을 담은 3.0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일보는 창간 33주년 슬로건으로 '다시 함께, 중부일보 세상을 담다, 시대를 품다, 시대를 넘다'를 선포했다.

산사태! 대비하면 안심, 방심하면 재난. 작은 관심으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주변의 산사태위험 점검: 배수로를 확인하고 잡목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기상 및 산사태 정보 확인: 호우·태풍 등 기상정보와 산사태 예·경보를 확인한다.

대피장소 확인: 대피소와 비상연락처를 미리 알아둔다.

구조요청: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119에 구조를 요청한다.

산사태 발생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 또는 119로 연락해주세요.

산림네상스